



성전 건축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이번 주 묵주기도 중 기억할 분들 (9월 28일 ~ 10월 4일)

월	이창윤 도마, 류동원 글라라, 박수정 아녜스, 김영숙, 김정옥 김보희, 신현범, 정순남, 정태언 요셉, 유명상 요셉, 윤소영 리오바, 손정아 가브리엘라, 서승희 엘리사벳, 임범진 베드로, 손영자
화	김성수 예로니모, 김상철, 김영임 마리아, 권용원 스테파노, 박영규 안토니오, 한영희 클라라, 김인영 클라라, 임옥자 막달레나, 박명수 스타니슬라오, 손희복 엘리사벳, 송학달 요한, 장정희 모니카, 최복녀 세라피나, 김데레사 데레사, 이지예 소화데레사
수	서진우 안토니오, 유경희 소피아, 이민지 레문다, 안옥순 마르타, 남기철 제르바시오, 박재은 헬레나, 이정희 소피아, 양동현, 정삼남 미카엘라, 최용찬 프란치스코, 홍명자 마르티나, 김지원 베드로, 김윤정 데레사, 김이웅 요셉, 이차숙 아가다
목	박현 비비안나, 박관태 세례자요한, 안금자 사비나, 정성희 리디아, 김인순 헬레나, 김경화 아녜스, 남순강 베로니카, 최순자 수산나, 홍군자 마리아, 맹재임 레지나, 고경순 요셉피나, 주금자 요안나, 노의자 리디아, 박철규 베드로, 최용임 안나
금	이은선 레아, 이병순 안나, 허성원 미카엘, 이옥자 마리아, 권두선 마리아, 김태윤 베드로, 박계화 세실리아, 박준영 세례자요한, 하수연 로사 이영숙 마리넬라, 정정자, 여영순, 이성현, 김도인 요한
토	최순복 미카엘라, 손재현 마리아, 박계남 빈첸시오, 한선옥 아녜스, 이순삼 마리아, 홍형우 안드레아, 한정아 안젤라, 박태수 경환프란치스코, 최선영 마리아, 임재연 율리아, 권미영 수산나, 김은영 크리스티나, 박정수 카타리나, 김혜원 아가다, 최재향
주일	조동우 세례자요한, 이용미 헬레나, 이새미 베르틸라, 이정미 카타리나, 김이정 실비아, 양준 암브로시오, 오정숙 마리아, 박제성 프란치스코, 이희숙 안젤라, 최병진 바오로, 변현지 데레사, 황정환 베드로, 엄인숙 체칠리아, 윤강현 베드로, 유명자 아가다



미사 참례 현황

총 신자 713명 중 주일미사 189명 참례 / 참례율 : 26.51%

평일미사	토 (9/19)	월 (9/21)	화 (9/22) 내촌 / 본당	수 (9/23) 본당 / 송정	목 (9/24) 송정 / 본당	금 (9/25) 합동위령미사
	17명	13명	13명 / 26명	16명 / 10명	9명 / 10명	99명
주일미사 (9/13)	내촌공소	토요일 저녁	두촌공소	송정공소	교중미사	철정공소
	25명	34명	22명	22명	66명	20명



2026 창조시기 주제와 상징

살아 있는 물

6. 살아 있는 물에 잠기기: 회개와 치유

성경은 반복해서 물을 하느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연결합니다. 나아만 이 요르단강에 몸을 담근 일(2열왕 5장 참조)과 못가에서 기다리던 병자의 치유(요한 5장 참조)가 그 내용입니다. 에제키엘 자신도 점점 더 깊이 강물에 잠기게 되는데, 이는 세례의 이미지를 반영하며 새로 남을 상징합니다.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세례를 상기시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침수 세례를 위해 흔히 대형 세례대를 사용하였고, 세례대 안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들어갔습니다. 이는 에제키엘의 환시에서 물이 점점 깊어지는 모습을 반영합니다(에제 47,3-6). 에제키엘서의 앞부분에서 하느님께서는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에제 36,25-27). 우리는 치유를 위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왔던 물과 피를 떠올리게 됩니다(요한 19,34).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곧 하느님의 치유를 받아들이면, “생수의 강들” (요한 7,38)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오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치유되고 새로워지면서, 그 살아 있는 물은 다른 이들과 창조세계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에게서도 흘러나오게 됩니다.

7. 행동으로 부르심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1요한 4,19 참조). 하느님의 아들딸로서 끊임없는 마음과 정신의 회심을 통해 그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평생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참된 생명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선택한다면, 우리는 모든 인류 가족은 물론이고 다른 피조물을 위해서도 더욱 정의롭고 생명을 주는 세상을 가꾸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식량 안보: 에제키엘의 예언은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 (에제 47,12) 나무들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영양가 있고 안전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또 생물다양성의 결실이 형평성 있게 분배되도록 우리의 정책과 실천을 만들고 반영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소유지에서 그리스도교 가치를 반영하는 녹지 조성 사업을 장려할 수 있고, 신자들에게 일부 먹거리를 재배하는 기술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 수질 오염: 우리는 유해 오염을 삼가고 규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산업과 농업 부문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수원을 보호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물과 위생 시설: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가 여전히 안전한 식수와 위생 시설을 안정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 학교, 의료 시설, 교회와 본당을 포함한 경배 장소가 깨끗한 물과 적절한 위생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 환경 교육: 부모, 교리교사, 성직자, 신앙 공동체는 인간과 다른 피조물을 아울러, 창조세계에 대한 통합적 돌봄을 키워나가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지식뿐만 아니라, 관계와 윤리, 그리고 영적 양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창조세계에서 영적 영감 얻기: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관상함으로써(욥 7-12장), 우리는 지배에서 겸손으로, 착취에서 돌봄으로, 단기적 이익에서 장기적 변혁으로 나아가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영적인 동시에 실천적이며, 가치관과 경제 체제, 그리고 교육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생각하도록 요구합니다.

- 나무 심기: 이제 많은 교회가 세례, 견진, 장례 같은 신앙의 중요한 순간을 나무 심기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나무 심기가 우리 영적 삶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자리잡도록 합시다. 나무는 탄소배출로 인한 오염을 흡수하고, 토양 침식을 막으며, 홍수를 줄이고, 식량과 치료제를 제공하고, 도시 환경의 기온을 낮춰 줍니다. 나무는 참으로 만민에게 치유를 가져다줍니다.

- 우리의 바다 돌보기: 우리의 ‘푸른 허파’ 인 바다는 쓰레기 배출, 남획, 오염, 심해 채굴로 인해 점점 더 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파도 아래 있는 생명과 생물다양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에서도 멀어지면 안 됩니다. 교육자들이 우리 지역사회가 이러한 해양 세계를 보고 소중히 여기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정부 지도자들이 해양 생물군계와 그곳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세대를 거듭하여 이 푸른 허파가 숨 쉬도록 지켜 주는 청지기직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복원과 보호: 우리는 교회와 가정, 지역사회의 터전을 회복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실천 운동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와 세계개혁신교회커뮤니언은 ‘기후 정의 10년’ 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 과 ‘성공회 숲’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있으며, 프랑스의 ‘에글리즈 베르트’ 또는 아 로사 인터내셔널이 영국에서 주관하는 ‘에코 교회’ 같은 국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 내고 하느님 사랑의 물결 속으로 발을 내디딥시다. 이제 세상을 위한 ‘변화의 강’ 에 합류하여, 창조세계의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 그리고 지구의 축복을 바라봅시다.



성산 갈바리아의 성십자가성당

SEONGSAN CATHOLIC CHURCH



우리들의 정성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주일 헌금	1,074,000	주일헌금(송정)	156,000	교무금	1,215,000
양성, 복지, 원로	108,000	미래 기금	121,000	감사헌금	500,000
2차 헌금	710,000				

교무금 최정화, 유옥순, 김후태, 청안건설, 강인식, 장혜분, 안영재, 권일용, 신정희, 강민정, 신현수, 손삼술, 이은순, 노양호, 윤정숙, 최인순, 박영수, 이효순, 김석기

감사헌금 한용희 신부 100,000 강유빈 신부 300,000 전용기(스테파노) 100,000



성전 건축 기금 현황

2026년 9월 23일 기준

구 분			이번 주	2026년 누계
수입	우리 본당	교무금 납부시 건축기금	435,000	11,043,000
		약정 기부	700,000	156,270,000
		2차 헌금		9,979,950
		기타 수입		25,382,463
	외부 모금	타본당 모금	1,440,000	154,277,326
		매일미사	3,940,000	87,170,120
		평화방송	114,720,000	234,102,209
		가톨릭 평화 신문	480,000	16,355,000
		가톨릭 신문	660,000	49,375,000
		기타 후원		21,539,000
합 계		122,375,000	765,494,068	
지출	건축	설계비		36,041,570
		건축 준비비		7,560,000
	모금 홍보	광고비		52,351,200
		모금 준비비	929,770	7,763,020
		봉사자 지원비		1,440,850
	합 계		929,770	105,156,640
현 잔액			1,327,185,344	

본당 약정기부 약정기부 144세대 188,500,000원 중 156,270,000원 납부 (납부율 82.90%)

박인옥, 최정화, 정현희, 정구호, 조순미

타본당 모금

스무쥬성당 300,000원 정혜영, 김명숙, 윤창섭, 고종섭, 김재숙

죽림동성당 360,000원 민태강, 배혜연, 진보은, 김상희, 황금옥, 엄명자, 박기철

교동성당 780,000원 황봉호, 황재욱, 고종문, 박주현, 김종숙, 박숙희, 김준용

매일미사 최영순, 공운표, 문종양, 박지수, 익명, 이진삼, 최기동, 바오로, 박영찬, 한창희, 김계자, 곽영례, 우선주, 홍명자, 양승희

평화방송 강매리, 장금철, 심미혜, 김영주, 박용주, 허주희, 황민재, 한의자, 이채순, 엄순자, 윤동원, 장유정, 전유숙, 양진우, 김일, 황예빈, 이해경, 이경호, 백정희, 문희숙, 고경자, 김순례, 최정숙, 장태경, 이연철, 신민진, 김은수, 우화숙, 강순희, 장문순, 김동훈, 김복자, 안소현, 이두이, 박순연, 엘리여거스틴, 정하자, 강현주, 조미려, 한성호, 장유진, 이영규, 김재록, 한민자, 유옥자, 박돈서, 배영일, 김인호, 김태희, 이은복, 김철수, 임수경

가톨릭신문 황정나, 박현수, 이오령, 마리아, 이해경, 김보영, 조화자, 최대은, 황인선, 김영이

가톨릭 평화 신문 전길자, 윤영배, 이미자, 임재광, 김준현, 김윤옥, 강만호, 김경태

지출

모금 준비비 모금용 휴대폰 요금 9,770 실리콘백 추가 구입(50세트) 920,000

레지오 훈화 2-3. 성모 마리아에 관한 교의 -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1)

마리아께 ‘동정녀’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은 이미 복음서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이사야 예언을 전하면서 마리아께서 명확하게 ‘동정녀’이심을 밝히고 있다(마태 1,23 참조).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신앙의 내용을 요약한 신경은 성모 마리아께 ‘동정녀’라는 칭호를 빼뜨리지 않고 있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사도 신경). 동정으로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인간들에게 알 아들을 수 없는 신비였다. 따라서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이사 7,14)라는 이사야의 예언은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루카 1,37)라는 하느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징표였다. 동정 잉태는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던 만큼 마리아 자신에게도(루카 1,26-38 참조), 그의 약혼자 요셉에게도(마태 1,18-25 참조) 하느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계시하셔야 하였다. 교부들은 마리아의 동정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읽을 줄 알았다. 유스티노 성인은 마리아의 동정성이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한 가지 징표로 이해하였다. 유스티노 성인 이후 ‘동정녀’는 성모 마리아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다. 마리아의 동정성은 예수님 출산 이전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은 많은 교부들에게 문제없이 수용되었다. “동정으로 잉태하셨으며, 동정으로 출산하셨고, 출산 후에도 동정으로 머무신다.”

이러한 입장은 마침내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선언되었으며, 이후 공의회를 통하여 반복하여 천명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낳으셨음에도 완전한 동정성이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성화되셨음을 확인하였다. “천주의 성모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동정성을 감소시키시지 않고 오히려 성화하신 당신의 만아드님을 목자들과 박사들에게 기꺼이 보여 주시던 성탄 때에 그 결합이 드러난다”(교회 헌장, 57항).